

5G 시대와 연극의 현실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영국은 각 지방의 예술지원기금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약 4천8백만 파운드의 지원이 끊어져 그 결과로 재정위기에 놓인 극단(장)과, 곧 다가올 5G를 향한 영상미디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대인들의 지각변동, 그리고 관객의 고령화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소외된 계층(Digital Divide)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그에 따라 기술 복제된 이미지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텍스트 위주의 공연보다 이미지 위주의 공연들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지 지난달 ‘연극과 과학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잠시 들여다 보았다. 이번 글에선 과거 텍스트 위주 중심이었던 연극이 갖고 있던 지위가 서서히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각계 전문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1. 현실 외면

영국인이 아니더라도 가끔 미국을 포함해 유럽을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 연출가, 또는 연극학자들이 오늘날 연극에 대해 얘기하는 몇 가지 단상이 있다. “연극의 위기”라고 하기엔 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공통된 문제의식쯤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연극 무대에 올랐던 드라마 텍스트의 역사는 우리에게 ‘극장이란 인간들이 모여 그들이 체험한 경험의 본질을 토론하고 점검하는 장이었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혼란들과 다양한 모습들이 영국의 연극무대에서 쉽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근 언급했던 사람은 로버타 레비토우(Roberta Levitow)¹⁾라는 미국의 여성 연출가이다. 그녀에 따르면 사회는 환경문제, 유전자조작, 가상현실, 문화지배, 현대의학의 도덕성, 테러리즘, 인

종, 성(sexual)의식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일상으로 다가오면서도 불구하고 연극이란 장르(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가 다루게 내버려 두면서)는 이같은 주제를 좀처럼 무대에 끌어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공연들은 어떤 소재들일까? 한때 잘 나가던 코미디 작품의 리바이벌과 셰익스피어 같은 고전, 그리고 그리스 비극 등 연극이 현실을 외면해 버린 감이 있다는 생각이다. 아니, 이젠 극장으로 간다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발길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2. 연극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연극인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연극계의 현실보다 영국 형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 단정지을 수 없으니 아쉬울뿐, 오늘날 연극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의 현실은 영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전자 상거래, 디지털 이미지, 그리고 사이버 시대 가운데 홀연히 살아가는 유리 세공업자(불어서 병을 만들던) 또는 아직까지 실과 바늘로 가죽 구두를 제작하는, 시대에 뒤쳐진 기술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량생산체제와 눈부시게 발전된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돌을 깎아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고대의 장인이 된 듯... 한때, 제사를 지내며 얘기를 전해주던 스토리텔러(Storyteller)에서 높이 추앙 받던 시기는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박제처럼 장식된 고서에서의 기록으로나 볼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작가(지방생을 포함)들과 연출가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로 흡수되어 예전에 하던 일을 몰두하

1) 미국의학회에 의해 설립된 예술위원회 NEA 최고 연출상(시애틀 레퍼토리 극단)을 받은 미국의 여성 연출가.

게 되었다. 무대에 선 배우들은 몇 안되는 관객을 바라보기보다 홀그중에 있을지도 모를 영화, 방송국 관계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연극이 가진 위상은 이제 현실보다 우리 기억 속에 더 뚜렷이 남게 되었다.

3. 아방가르드(Avant-Garde)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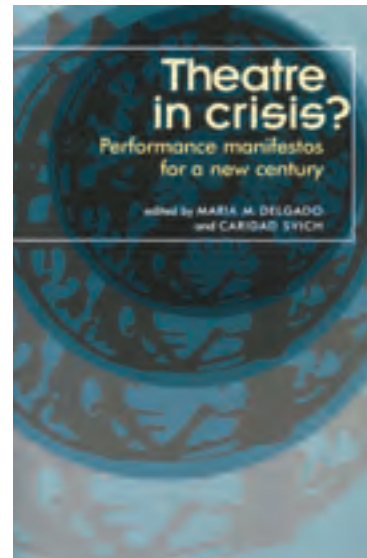
1960년대 유럽과 미국 연극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 사회적 아방가르드를 이루었고 당대의 관객들은 이를 환호했었다. 관객들 대부분은 젊고 뜨거웠으며 마치 극장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실험의 장이었다고 로버타는 회고한다. 거의 모든 연극이 시장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에 당혹스럽기도 하단다.

공연 계획, 연습 과정, 극장 운영, 그리고 실제 공연이 모두 재정과 연결되어 사고되어가는 점은 연극이 예술가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변모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마치 연극 제작과정이 시장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활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분명 이렇게 연극이 스스로 고통 받고 있었을 때 관객의 무관심은 커져갔다.

리즈대학(UL)의 리네프 헌터(Lynette Hunter) 교수는 영국 연극에서 사라진 도전의식과 새로움의 근거를 1980년대 대처(Thatcher)와 그 연장선에 있는 90년대 존 메이저(John Major) 정부가 가졌던 예술에 대한 보수적 성향으로 보고 있다. 비록 80년대 영국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금 축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던 새로운 밀레니엄을 넘긴 시점에 대체 오늘의 젊은 연극인들의 실험정신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4. 저임금 노동

예술에 투입되는 자금 지원 가운데 복권사업(National Lottery)이 있지만 이 자금 혜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나머지 반(50%



『공연의 위기(Theatre in Crisis?: Performance Manifestos for a New Century)』, 맨체스터 대학 출판사(Manchester University Press, November 15, 2002)

matching grant)을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실제 영국의 콘택트(Contact) 극장과 볼튼 옥타곤(Bolton Octagon) 극장은 운이 좋아 복권기금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을 다른 곳으로부터 채울 수 없어 파산신청과 지방투어 공연의 수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렇게 극장이 파산하면 그곳에서 일했던 배우, 연출, 작가들은 대개 오페라, 영화, 텔레비전으로 옮겨간다. 오페라는 연극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며, 영화나 텔레비전은 전혀 다른 조건이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든버러 트레버스(Edinburgh Traverse) 극장의 전 예술감독인 피터(Peter Lichtenfels)는 대개 이런 경우가 여성 인력들이 극장으로 흡수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극장의 임금저하 논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여성 배우, 작가, 연출가들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잘 참아내며 고정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조차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최근 에든버러 축제에서도 지적되어 수십 년 간 이어진 공연장 운영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극장주가 나타나기도 했다.

2010년부터 보자면 약 1억6천만 파운드를 축소한 예술 지원금과 관객들의 무관심 그리고 창작을 담당하는 연극인들 모두의 실험정신의 부재가 '사회에 정말 연극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연극의 유용성을 의심하게 하는 큰 병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